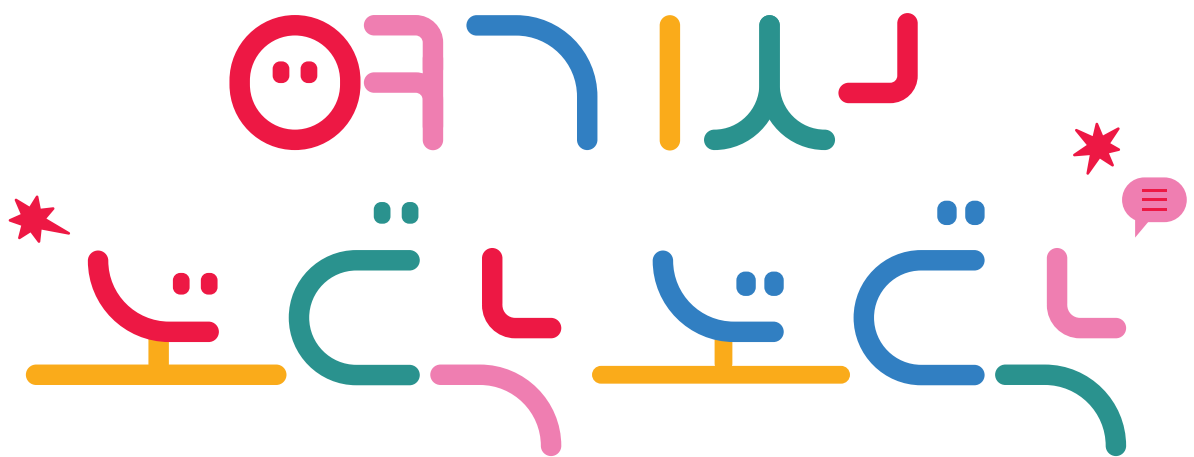


일상을 문화로 덧대는





목차

노닥노닥 취향테스트	6
안녕, 클래식? 나의 첫 클래식 수업	8
웰컴 투 오디션 「라파도에선 아파도」	12
6ARTIST 6CRAFT 공예 속에서 노닥노닥	16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아트	20
채경화 살롱	24
김반장의 노닥노닥 일지 -부제: 생활문화활동가, 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30
2022 노닥노닥 리서치	32

노닥-노닥

[노당노닥]

조금 수다스럽게 자꾸 재미있는 말을 늘어놓다.

‘여기서 노닥노닥’은 공간→사람→소통으로 이어지는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가깝지만 처음 발견한 동네 공간에서, 낯설지만 취향이 비슷한 동네 사람과, 조금 수다스럽게 자꾸 재미있는 말을 나누며 노닥노닥합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특별한 목적도 없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저 즐겁게 노닥노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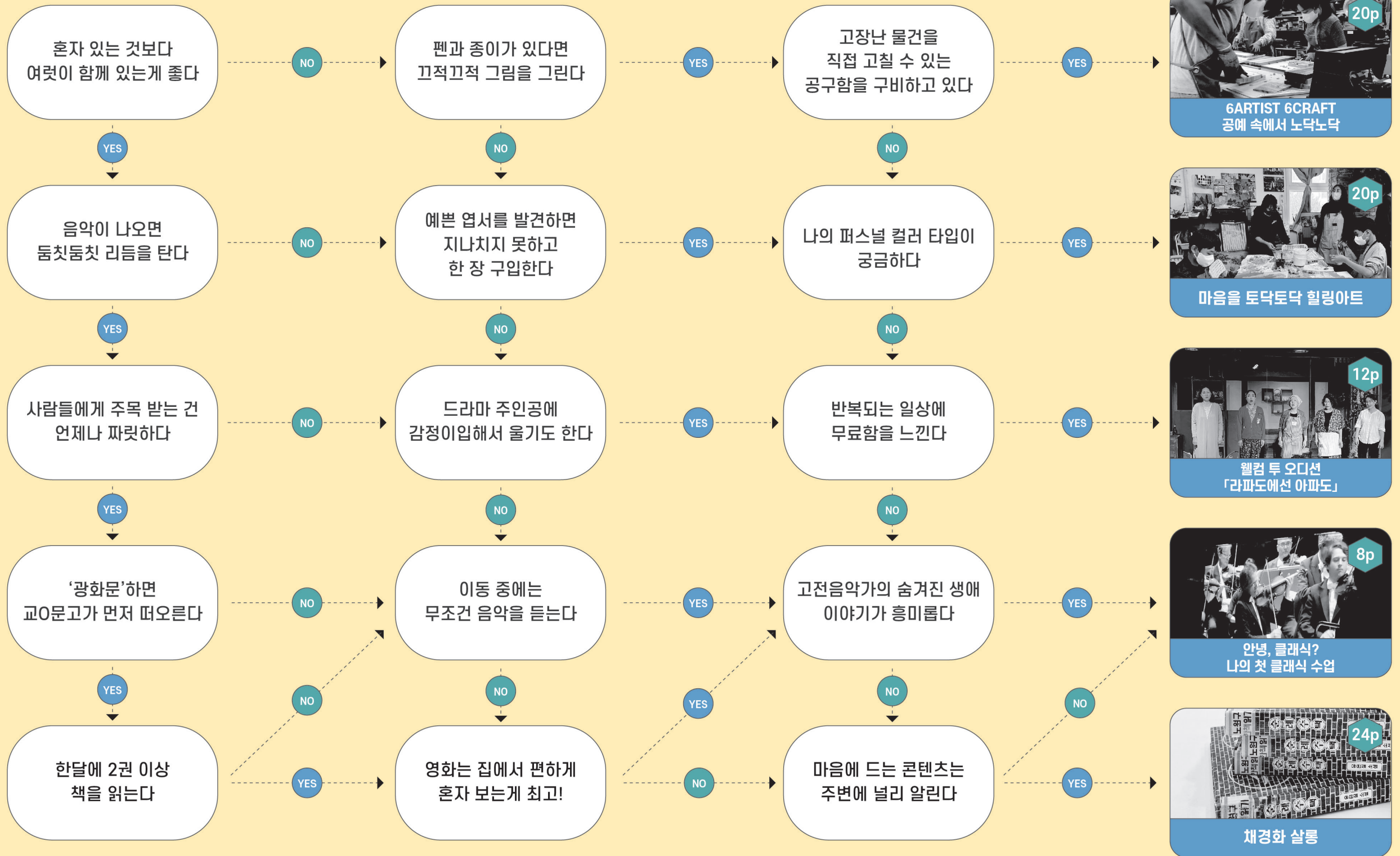
“ 노닥노닥하고 계시는지요? ”

아직 노닥노닥이 낯설다면 책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먼저 노닥노닥한 이웃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러분이 바라는 노닥노닥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

✓노닥노닥 취향 테스트 ✨

시작



노닥노닥 취향 파악 완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

여기서 노닥노닥 | 01

안녕, 클래식? 나의 첫 클래식 수업



노원구의 유일무이한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하우스**에서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가 엄선한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지식을 채우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진행 기간

2022.7.23.(토) ~ 9.3.(토)

진행 장소

베토벤하우스

참여 인원

10~60대 노원구 거주민 20명



진행 과정

1회차	2022.7.23.	클래식의 시작, 종교음악
2회차	2022.7.30.	모차르트, 베토벤의 고전음악 완성
3회차	2022.8.6.	낭만시대의 클래식 I
4회차	2022.8.27.	낭만시대의 클래식 II
5회차	2022.9.3.	클래식음악이 낳은 대중음악

참여자 의견

좋았던 점

- 클래식음악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고전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도 기분도 좋았다.
- 음악의 역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전문적인 교육이 있었다.
- 클래식에 쉽게 접근하고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

- 회차가 적은 것이 아쉬웠다.
- 음악을 들려줄 때, LP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 강의가 좀 더 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BEETHOVENHAUS



공간 알기 2. 운영자 인터뷰 | 임정빈 대표

여기서 노닥노닥 '안녕, 클래식? 나의 첫 클래식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간 운영자로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노닥노닥이라는 명칭이 좋았어요. 노원구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네이밍으로 노원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어서. 노닥거리는 것 자체가 생활문화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공간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것. 그리고 클래식음악 감상이라는 분야로 노원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기회로 공간과 참여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

여기서 노닥노닥을 통해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꼭 하고 싶은 게 있죠. 미취학 어린이 혹은 아이를 가진 부모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노인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요. 유럽의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머리가 하얘요 (웃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유럽의 노인들은 음악을 알고 듣는다는 것.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음악을 대중가요처럼 흔하게 듣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죠. 음악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음악을 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노원구에서 혹은 상계동에서 베토벤하우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 지금은 성장이 멈추어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으니까. 음악 감상을 위해 감상실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많이 찾아주었으면 해요.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노원구민이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취미 공간으로 그 역할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공간 알기 1. 노닥노닥 가이드



베토벤하우스에서 노닥노닥하는 법

- 음악감상실 입장료를 지불하고,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을 감상하며 느긋한 티타임을 가져요.
- 베토벤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음악 클래스를 신청하고,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공간명 | 베토벤하우스

용도 | 클래식음악감상실

주소 | 노원구 노해로75길 14-17, 3층

SNS | 페이스북 @beethovenhouse



안녕, 클래식? 나의 첫 클래식 수업
진행 영상이 궁금하다면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

여기서 노닥노닥 | 02

웰컴 투 오디션 3탄 <라파도에선 아파도>



석계시장 골목에서 향기로운 존재감을 내뿜는
소극장 로즈아트홀에서 끼와 열정 가득한 주민 배우와
극단 기적이 만드는 공연 프로젝트

진행 기간

2022.6.20.(목) ~ 9.15.(목)

진행 장소

로즈아트홀

참여 인원

30~60대 노원구 거주민 12명



진행 과정

오디션	2022.6.20.~29.	두근두근 주민 배우 오디션
	2022.6.30.	반가운 첫인사 그리고 첫 연습
배우훈련	2022.7.14,28	신체 훈련과 대본 숙지
	2022.8.5,11,18,25	여름 무더위에도 땀 흘려 연습
	2022.9.1,7,8,11,13,14	시시각각 틈틈이 모여 연습
공연	2022.9.15.	창작극 「라파도에선 아파도」 공연

참여자 의견

- 좋았던 점**
- 주민 배우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 동네에 이런 소극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바빠 사느라 잊고 있던 꿈을 찾았다.
 - 내면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느낌이었다.

아쉬웠던 점

- 기간이 짧아 아쉬웠다.
- 공간이 널리 알려져서, 지금보다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



공간 알기 2. 운영자 인터뷰 | 이정은 대표

‘웰컴 투 오디션 「라파도에선 아파도」’를 진행하면서, 공간 운영자로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시작하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서너 달을 주민 배우와 함께 연습하는 일정에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쉽지 않죠. 그래도 노닥노닥을 통해 극장에 주민분들의 발길이 닿는 데에 감사해요. 발길이 닿아 창작도 이루어지니까요.

웰컴투오디션을 올해로 3탄까지 진행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만난 분들은 물론, 매년 새로이 생겨났던 에피소드들이 떠올라요. 처음 극장에 모일 때는 약간의 기싸움이 있어요(웃음). 주민 배우에게 대본을 제시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스스럼없이 내놓죠. “그렇죠. 어떻게 살을 붙이면 좋을까요?” 반문하며 주민 배우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을 올리고 끝마쳤을 때, 이렇게 좋은 대본인지 몰랐다고 즐거워하네요.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올해는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 과정부터 참여자들의 삶 이야기를 많이 여쭙어봤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인데, 각자 가진 성향을 캐릭터에 접목해서 <라파도에선 아파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연을 끝마쳤을 때 주민 배우들의 감동이 배가 되

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도 좋은 분들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노닥노닥을 통해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석계역 문화공원에서 마당놀이를 해보고 싶어요. 마당놀이가 참여자들이 크게 힘들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몰입하여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계에 사는 분들이 집 앞에 마실 나왔다 편하게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

극단 기적과 로즈아트홀은 노원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나요?

극단 기적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연습실이 없어서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을 전전하며 연습했어요. 그러다 보증금 조건이 맞는 곳을 찾으면서 석계에 정착하게 됐죠. 대학교가 아닌 동네 시장 한가운데에 위치한 소극장을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극장을 찾아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의리를 지켜주는 단원들 덕분에 공간을 유지하고, 확장해가고 있어요. 로즈아트홀이라는 이름처럼 장미의 진한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듯이 이웃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문화 콘텐츠를 퍼뜨리는 공간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공간 알기 1. 노닥노닥 가이드



공간명 | 로즈아트홀

용도 | 소극장 및 연습실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7길 12-8

SNS | 인스타그램 @rose_arthall

로즈아트홀에서 노닥노닥하는 법

- 극단 기적의 창작뮤지컬 ‘라면에 파송송’을 예매하고 관람해보세요.
- 창작 활동을 위한 연습 공간 또는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모임 공간이 필요하다면, 극단 기적으로 대관 문의를 해보세요.



웰컴 투 오디션 「라파도에선 아파도」
진행 영상이 궁금하다면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

여기서 노닥노닥 | 03

6ARTIST 6CRAFT 공예 속에서 노닥노닥



'함께'의 가치를 아는 목공방 우크반에서
6인의 작가를 만나 경험하는 6가지 주제의 공예수업

진행 기간

2022.9.24.(토) ~ 10.1.(토)

진행 장소

우크반

참여 인원

10~50대 노원구 거주민 36명



진행 과정

1회차		목공예 우드펜 만들기
2회차	2022.9.24.	알코올 플루이드 아트 티코스터 만들기
3회차		레진 플루이드 아트 파도시계 만들기
4회차	2022.10.1.	목공예 원목도마 만들기
5회차		목공예 카빙 트레이 만들기
6회차	2022.9.24.	사진촬영 빛에 대한 이해와 사진찍기

참여자 의견

좋았던 점

- 처음 배우는 레진아트와 카빙이었는데, 강사님들의 친절하고 세세한 지도가 좋았다.
- 저렴한 재료비로 부담을 덜어주어서 감사했다.
- 공방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

- 한 주제의 수업을 여러 회에 걸쳐 진행하면 좋겠다.
- 노쇼를 줄일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신청이 마감되어 지인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당일에 공석이 있어 아쉬웠다.



6ARTIST 6CRAFT를 주제로 6명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예 수업에 대한 참여자 반응이 좋았어요. 기획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순수하게 목공이 좋아서 비전공자로 시작했어요. 전공자를 따라잡기 위해 목공과 다양한 분야의 아트를 결합하고 여러 시도를 하며 성장했죠. 그 과정에서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여럿 만났어요. 이 아티스트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나 예술가, 청년들이 현대 목공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눈높이도 성장하리라 기대해요. 그러면서 이 분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분에게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맨땅에 헤딩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한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노닥노닥 사업 지원을 통해 시도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한 대로 잘 마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을까요?

두 번의 노닥노닥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느낀 점은 일회성 체험의 형태보다는 계속해서 지역민과 예술가의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어요. 목공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단순히 작품 하나 만들고 끝내기보단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후에도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노원구에서 우크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나요?

노원구의 교육기관, 지자체 센터, 학교 등에서 체험학습을 많이 오세요. 감사하게도 지역을 대표하는 목공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목공을 체험한 아이들이 '목공방=우크반'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 때도 재미를 느끼면서 다양한 공예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해요. 손수 디자인하며 창의성을 키우고, 성취감을 고취하는 수업에 중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 알기 1. 노닥노닥 가이드



우크반에서 노닥노닥하는 법

- 다양한 목공예 클래스를 신청해보세요.
나의 손길을 거쳐 탄생하는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요.
- 창작활동을 펼칠 작업공간 쉼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우크반으로 문의하세요.

공간명 | 우크반

용도 | 목공방

주소 | 노원구 동일로242길 66

SNS | 인스타그램 @wookvan



6ARTIST 6CRAFT
진행 영상이 궁금하다면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아트



고단한 일상에 잠시 심표를 찍는 여유를 전하고 싶은
주다르예술공방의 친구,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은 아트 클래스

진행 기간

2022.10.22.(토) ~ 11.5.(토)

진행 장소

주다르예술공방

참여 인원

10~50대 노원구 거주민 17명



진행 과정

1회차	2022.10.22.	마음 드로잉
2회차		
3회차	2022.10.29.	퍼스널 컬러 백드롭 페인팅
4회차		
5회차	2022.11.5.	엽서 전시 및 소통의 시간

참여자 의견

- 좋았던 점**
- 드로잉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해볼 수 있었다.
 - 선 하나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 다른 생각 없이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

아쉬웠던 점

-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 생소하고 어려웠다.
- 획일화된 우리나라 교육의 여파라고 생각함.



공간 알기 1. 노닥노닥 가이드



공간명 | 주다르예술공방

용도 | 예술공방

주소 | 노원구 마들로 59 미성상가 208-1호

SNS | 인스타그램 @jeu_dart

주다르예술공방에서 노닥노닥하는 법

- 다채로운 장르의 미술 클래스를 신청해보세요. 쓱쓱 캔버스를 칠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 나에게 맞는 미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주다르에 문의하세요.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아트
진행 영상이 궁금하다면
QR코드로 접속해보세요.

공간 알기 2. 운영자 인터뷰 | 조연미 대표

주다르예술공방, 이름이 예뻐요. 기원이 있나요?

주다르예술공방은 프랑스어로 '예술놀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술놀이+터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공방에 오셔서 예술로 재밌게 노닐다 가시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여기서 노닥노닥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아트'를 진행하면서, 공간 운영자로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예술 공방을 처음 방문할 때 느끼는 낯선 감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내 자연스럽게 빠져들어 생소한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해보고, 그 표현을 통해서 해소를 느끼시죠.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아트'에 찾아오신 분들도 낯설지만 재밌었다고 하시고, 힐링 된다고 하셔서 좋았어요. 작게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토닥토닥해드릴 수 있어 기쁩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치가 소개되었다는 점이 도움이 됐어요. 동네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방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클래스 참여자 모집을 할 때도 주민센터에서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전 회차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면서, 계속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이 참 좋았던 분이 떠올라요. 평생에 이런 활동은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신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예술 활동은 단순히 무언가를 창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고 있는 저이기에 그 말씀이 더 와닿았어요.

앞으로 주다르예술공방이 만들어가고 싶은 예술 활동이 궁금해요.

우선 노닥노닥을 통해 모인 분들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형태로요.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 여유를 갖고 예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을 즐기고 이해하는 힘이 자신을 비롯해 지역 발전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요. 프랑스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숨 가쁜 일상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건드려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웃음).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쉬어가는 예술 활동을 만들고 싶어요.

노닥노닥 확장판

노원구립도서관 공동기획

채경화살롱



2022 노원구 한 책 읽기 주제 '가족'을
책과 영화로 함께 만나보는 소모임 프로그램



진행 기간

2022.8.19.(금) ~ 11.11.(금)

진행 장소

더숲 아트시네마
패스 커뮤니티
문화공간 정담
중계근린공원
상계예술마당

참여 인원

20~50대 시민 42명



진행 과정

1회차	2022.8.19.	영화 <남매의 여름밤> GV 윤단비 감독과 나누는 '가족' 이야기
2회차	2022.9.2.	영화 <이장> 함께 감상하고 토론
3회차	2022.9.23.	올해의 한 책 <순례주택> 독서 토론
4회차	2022.10.23.	노원 북페스티벌 함께 즐기기
5회차	2022.11.11.	네트워킹 파티

참여자 의견

좋았던 점

- 함께한 분들이 책에 관심이 많고 소규모라 더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 안락한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점이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쉬웠던 점

- 공연, 전시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 2회차 모임 때, 소감을 나눌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 ✨ 채경화살롱, 이렇게 진행했어요. ✨ *

살롱 1회차

영화 <남매의 여름밤> GV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관람하고 윤단비 감독,
이상용 평론가와 ‘가족’
이야기를 나눴어요.

채경화살롱과 함께한
우리동네 문화공간



더숲 아트시네마
노원구 노해로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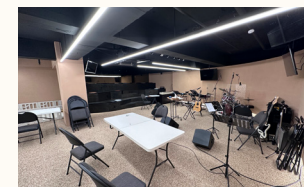


- 1 윤단비 감독과 이상용 평론가
- 2 영화 굿즈 나눔 및 사인회 진행
- 3 GV가 끝난 뒤 모인 채경화 살롱원들의 첫인사

살롱 2회차

영화 <이장> 감상 및 토론
다섯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이장을 함께 감상하고
토론했어요.

채경화살롱과 함께한
우리동네 문화공간



패스커뮤니티
노원구 상계로7길 23 문화빌딩



- 1 영화 감상 전, 모임 이끄미 김반장의 인사
- 2 영화 <이장>, 어떻게 보셨나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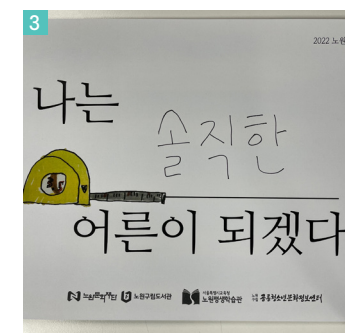
살롱 3회차

2022 노원구 올해의 한 책
<순레주택> 독서토론
웅숭깊은 메시지가 담긴
성장소설 순레주택을 함께
읽고 토론했어요.

채경화살롱과 함께한
우리동네 문화공간



문화공간 정담
노원구 중계로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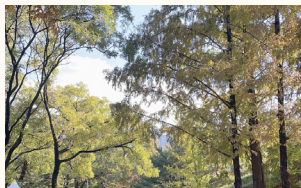


- 1 토론 이끄미 노원죽순이님께서 준비해주신 발제 자료
- 2 ‘함께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
- 3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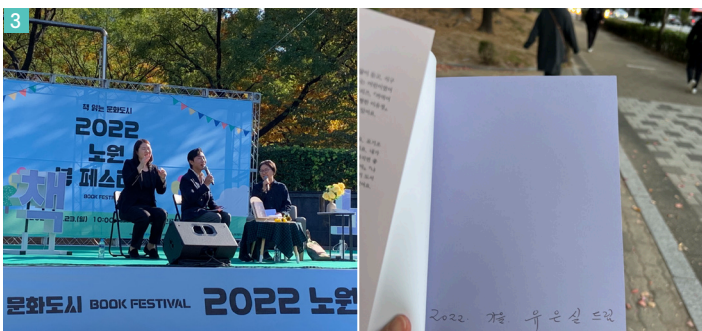
살롱 4회차

2022 노원 북페스티벌
살롱원들의 가족, 친구와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채경화살롱과 함께한
우리동네 공원



중계근린공원
노원구 동일로 1243



- 1 <순례주택>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질문 적기
- 2 우리 더 친해져요! 김반장이 준비한 행동미션
- 3 유은실 작가와의 만남. 채경화살롱원 가우니님의 질문이 채택되어 받은 선물

살롱 5회차

연말 네트워킹 파티
<우리가 사랑하는 책, 영화>
함께한 네 번의 만남을
돌아보는 오붓한 자리를
가졌어요.

채경화살롱과 함께한
우리동네 문화공간

상계예술마당
노원구 상계로10길 41-7



- 1 향기를 머금은 채경화살롱 책갈피 만들기
- 2 각자 선정한 올해의 책(또는 좋아하는 책) 교환식
- 3 이 모임... 계속 될 것 같아요 😊

채경화살롱 비하인드

채경화살롱을 탄생시킨,
월계도서관 신상민 사서
미니인터뷰

★ 김반장의 노닥노닥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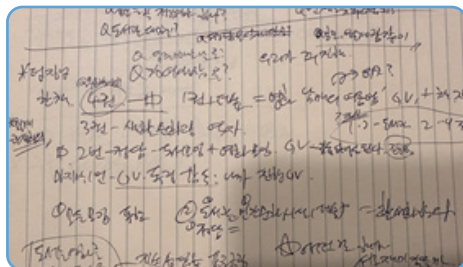
글 생활문화활동가 김신영

노원구 생활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생활문화활동가 김반장의 2022년 활동 일지입니다. 올해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생활문화활동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 생활문화활동가, 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역의 생활문화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을 매개, 촉진하여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을 해요. 노원구 곳곳 문화공간을 탐색하고, 운영자들을 만나고,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기도 하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수시로 찾아가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펴요.

5월 활동 초반 회의 기록



노원문화재단 생활문화 담당 은지님을 만나 나누었던 활동 초반 회의 기록이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나, 접근 방식을 설계했었다.

7월 극단 기적 연습 현장 방문



노닥노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극단 기적의 소극장 로즈아트홀을 찾았다.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모여 연습하는 주민 배우들을 응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다.

6월 노닥노닥을 위한 첫 만남



올해 노닥노닥 진행을 위해 처음 방문한 공간은 베토벤하우스였다. 베토벤하우스는 재작년 생활문화활동가로 활동할 당시 직접 발굴한 문화공간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노원문화재단과 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니 반가웠다. 재단이 지역문화공간과의 연계를 놓지 않고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았을까.

8월 영화 50편을 보다



노원구립도서관과 함께 채경화살롱을 운영하게 됐다. (채경화는 책+영화 합성어에서 따온 이름) 준비 과정에서 살롱원들과 함께 볼 영화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장편, 단편을 합쳐 50편 정도를 끊임없이 봤다. 심지어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간호하면서도 계속 영화를 봤다(웃음). 장고 끝에 고른 영화는 바로 <이장>이었다.

9월 숨겨진 문화공간을 찾아서



여기서 노닥노닥에 참여하기로 했던 갤러리지원 씨가 폐업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간 발굴이 불가피해졌다. 노닥노닥 라인업에 빠져있던 공동동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다녔다. 마침내 찾아낸 주다르예술공방에서 한 컷.

10월 함께 즐긴다



세 번의 모임을 하며 가까워진 채경화살롱원분들과 노원 북페스티벌을 함께 즐겼다. 소소한 추억을 드리고 싶어서 행동 미션을 준비했는데, 다들 쑥스러워하면서도 즐거우셔서(?) 부뒸했다.

11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주다르예술공방의 마음을 토닥토닥 힐링아트 참여자들이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여 그린 그림과 백드롭페인팅 작품을 엮어서 만들어 전시를 열었다. 각자의 경험과 감정, 생각이 담긴 투박한 그림은 생각보다 꽤 멋진 예술작품이 되었다.

‘20년 결과자료집을 직접 만들 때 넣었던 문구가, 올해도 마무리 즈음에 다시 생각났다. 생활문화활동가로 활동하는 동기이자, 가치관이자, 목표이기도 한 문구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야.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쓰는 거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같은 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지.
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존 키팅 -

사람들이 노원문화재단의 작은 움직임으로, 잃었던 낭만을 다시 만나길 바랐다. 각자가 안에 죽어가는 시인들을 깨우길 바랐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순수한 마음과 의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만났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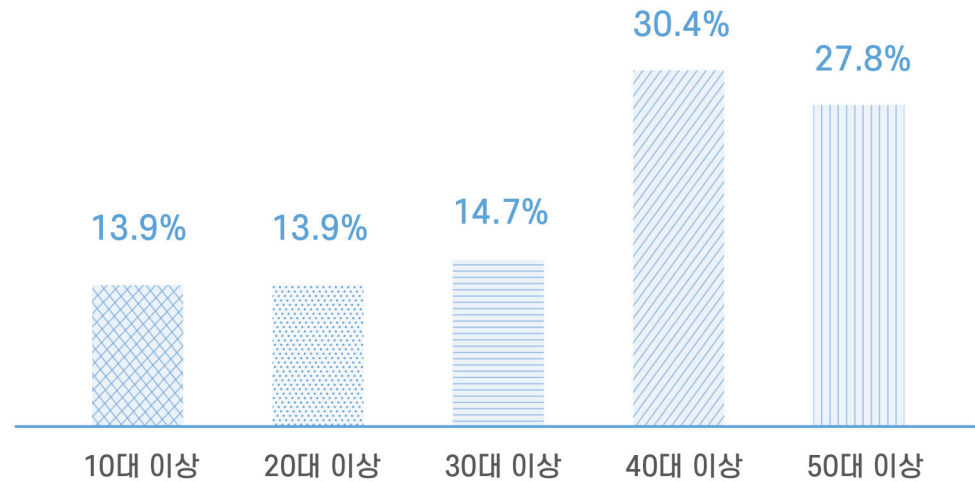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다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올해 노닥노닥을 함께한 은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덕분에, 본 사업에 참여했던 그 누구보다 내가 잃었던 낭만과 시를 다시 만났다. 그만큼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다.

한 해가 가고 있다. 노닥노닥을 통해 만났던 모든 분의 삶의 목적이 증폭되고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활문화활동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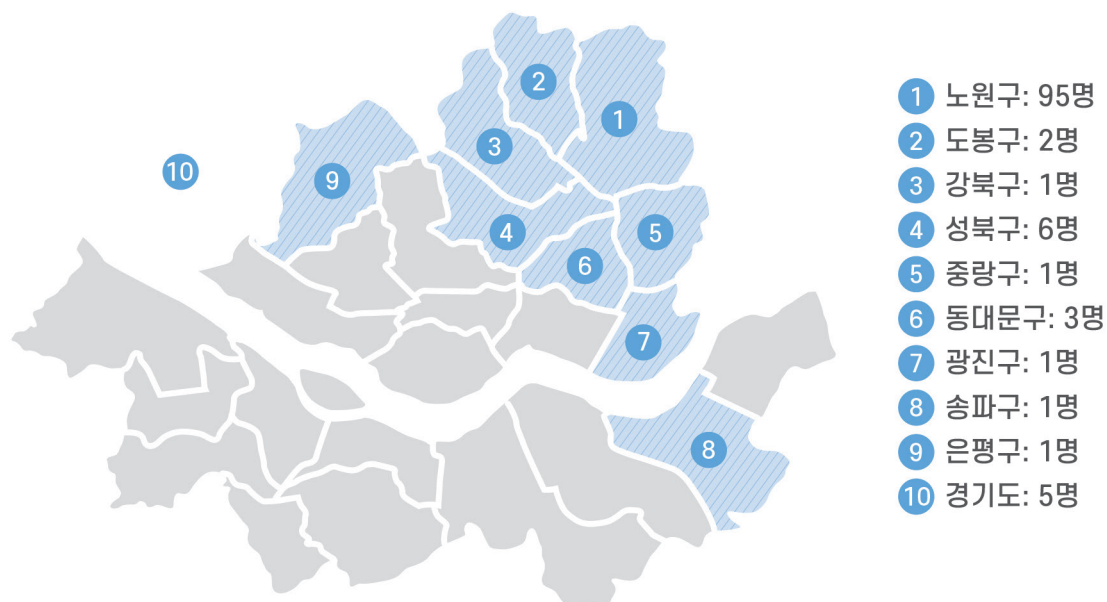
2022 노닥노닥 리서치

일상을 문화로 덧대는 여기서 노닥노닥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설문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어요.

1. 참여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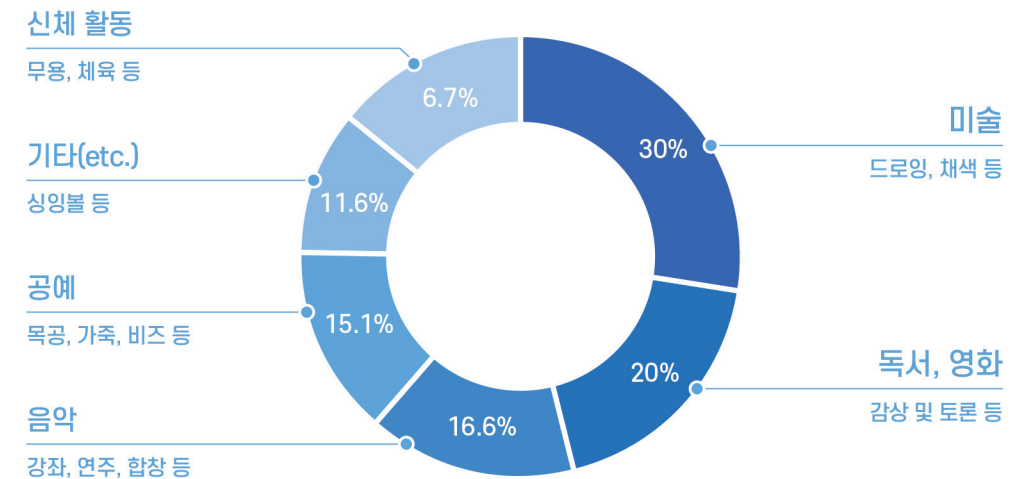
2. 참여자 거주지



3. 참여자 의견 (ver. 노필터)

- 😊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원해요.
- 😊 이 좋은 공간이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해요.
- 😊 강사님들 모두 친절했어요.
- 😞 다른 참여자의 카톡 알림 때문에 집중이 어려웠어요.
- 😞 마을 안의 작은 극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생기길 바라요.
- 😊 새로운 재료로 아트를 할 수 있어서 신선했어요.
- 😊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 😞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 😊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해서 조용했어요.
- 😞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4. 선호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분야





「생활문화25」

2022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서 노닥노닥 결과자료집

총괄 문화진흥팀 윤금노

기획 문화진흥팀 이은지

생활문화활동가 김신영

디자인 김양진

후원 서울문화재단

발행처 노원문화재단

발행일 2022. 1. 31.

여기서 노닥노닥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노원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